

유사 휘발유 생산 폭발적 증가

휘발유 203%에 경유 2601% 폭증 ... 폐 섬유평장에서 제조

2008년 적발된 유사 석유제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3월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(한나라당)이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<유사 석유제품 인수 현황>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, 2008년 유사 석유제품 단속에 걸려 압수된 유사 휘발유의 양이 370만리터에 달해 전년대비 20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유사경유는 25만5617리터가 압수돼 무려 2602% 급증했다.

특히, 대구·경북 지역의 유사 휘발유 압수량은 191만리터로 전국 유사 휘발유 압수물량의 51.7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김태환 의원은 “경산과 영천지역에서 폐업한 섬유평장을 인수해 석유화학업종으로 등록허가를 받고 제조탱크를 설치해 유사 석유제품을 만들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”으로 풀이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02>